

2022년 도 제 1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2년 9월 22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박 기 영 위 원
신 성 환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이 정 욱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용 식	공보관
	최 문 성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보고안건

<보고 제61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61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9월 15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각된 여러 금융안정 이슈들을 잘 분석하였다고 평가하였음. 또한 금융안정 상황 관련 동향을 핵심 키워드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자료작성 등을 통해 분석의 정도를 제고한 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만 일부 위원은 주요 이슈 중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는 무엇보다 시스템리스크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방향 제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대외자본유출입 관련 동향이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안정 측면에서 이를 보다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에서 점검한 부문별 리스크 요인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함께 앞으로도 금융안정 상황 점검시 통화정책 기조의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분석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주요 이슈 중 ‘부동산PF 대출 현황 및 평가’와 관련하여 증권사, 여전사와 같이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 충격으로 이어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를 추가하거나 참고문헌을 병기(併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아울러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음.

이어서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부동산PF 대출 현황 및 평가’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은행들의 신규 부동산PF 대출 중단이 기존 PF대출의 만기연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아파트 등과 관련한 PF대출의 경우 통상 만기가 3년 정도이고, 브릿지론(bridge loan)은 만기가 약 1년 정도인데, 기존 PF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이 시행된 이후 가격 하방압력이 높아진 지역 위주로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정확한 부분은 관계기관의 실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첨언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전체 PF대출에서 비은행권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이들의 잠재위험도 큰 것으로 평가되는 것과 관련하여, 비은행권의 대출 축소 움직임이 있는지 계속 파악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보고부서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및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 규모 등을 파악해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대출잔액과 금리상황을 반영하여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위원은 미국 정책금리의 터미널 레이트(terminal rate) 변화 등 대내외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부동산PF 대출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최근 우리 금융시스템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 자산가격 조정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축소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복원력 등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

다만 국내외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 등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은 금융안정에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특히 민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상승 압력과 그에 따른 금리 상승세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부담이 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시킬 우려

또한 그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대체투자가 확대되고 단기외화차입 비중이 높아졌음을 감안하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충격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한층 높아진 상황

이에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금융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준비를 강화할 필요

민간신용 증가 억제와 자산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노력을 병행

금융기관은 잠재 부실위험 현실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조달·운용 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유동성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